"왜 제주 자연인가를 오늘도 묻습니다"

갤러리 이디 개관기념 초대 채기선 작가와 관람객 만남 "해녀·한라산 제주 유전자 음악은 작업의 또다른 동력"

'한라산의 화가'로 불리는 채기선 작가가 지난 29일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에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상국기자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빚어낸 명상적 음악이 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시장에 퍼졌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이었다. 입구에 걸린 푸르른 화면의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가 탄생한 배경이라고 했다.

"제 캔버스는 음악의 떨림을 갖고 있습니다. 작업 동안에 틀어놓는 음악에 대한 느낌이 그림에 투영되기 때문이죠. 말러의 교향곡 '부활'을 들으면서 그렸던 그림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를 찾은 채기선 작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그가 초대전 '제주, 제주 너머'를 기념해 관람객들과 만났다.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멀리 서울에서 걸음을 하는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년 전업작가로 살고 있는 채 작가는 한라산을 그리게 된 계기, 색채의 변화, 창작의 원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1시간 넘는 만남을 이어갔다. 그지없이 평온한 화면이지만 그 여정에 시련이 배인 사연도 털어놓으며 청중들을 작업실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작고한 두 스승 김택화, 변시지 선생의 이름을 꺼냈다. 김택화 작가를 통해 제주 자연에 대한 표현법을 연마했고 대학 시절 변시지 교수의 미학 강의를 들으며 가슴 뛰었다는 그다. 1985년부터 야외 스케치에 나선 채 작가는 30대 초반에 이미 유화 1000여 점을 완성했다. 구상회화가 구시대적이고 장식적 미술이라며 '강력한 태클'을 걸어오고 작업의 방향이 흔들릴 때면 그는 스스로에게 '왜 제주 자연을 그리고 있는가'를 물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옷'은 구상 작업이고 제주 자연 그 자체가 감성의 밑바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머니가 해녀였고, 어머니가 해녀였어요. 상군해녀인 어머니는 흑산도로 물질을 갔는데 뱃속에 제가 있었죠. 어머니를 따라 파도소리와 숨비소리를 듣고, 애기구덕에서 반짝이는 물빛을 봤을 겁니다. 저는 완전한 제주 유전자를 품은 화가인 거죠."

30대 시절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대작들로 서울 인사동 개인전을 다섯차례 갖는 등 제주를 뛰어넘으려 했던 그는 10년 전에 또 한번의 변화를 위해 북한강변으로 거처를 옮겼다. 1996년 2월 신선이 놀다 떠난 붉은 한라산을 선물처럼 받았던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양평 살이는 혹독했다. 연꽃으로 펼친 개인전의 이면엔 그 아픔이 있었다. 채 작가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봄이 되어 나타난 꽃들이 없었다면 그 시기를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회상했다.

제주 너머의 작업은 그에게 한라산을 새롭게 풀어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달에 한두 번 고향에 오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라산, 제주항에서 마주한 한라산은 그에게 기적같은 장면을 보여줬다. 어느새 그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한라산을 그리고 있었다. 채기선 작가 등 '제주, 제주 너머'의 그림들은 7월 17일까지 갤러리 이디에서 볼 수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예재단 공모 이사 특정 단체 쏠림

도지사, 공석인 이사 임명 예총 관련 인물 비율 늘어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선임직 이사의 특정 단체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재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 지난달 28일 공석이던 이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제주민예총 이사장이 해당 단체장 임기 만료 후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지난 2월 실시된 공모다.

문예재단은 당초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제주예총, 제주민예총 대표 3명을 당연직 이사로 앉혔다. 그러다 2015년 정관 개정을 통해 해당 단체에 대한 당연직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제주예총·민예총 대표가 나란히 공모직으로 이사를 맡아왔다.

이번은 달랐다. 민예총 임원이 이사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낙점되지 않았다. 그 결과 11명의 선임직 이사 중에서 총괄 예술단체와 관련된 7명 모두 제주예총(회원단체 포함) 전현직 임원 등으로 채워지게 됐다. 예총 회원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균형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재단의 임원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재단 이사회 추천 외에 제주예총과 민예총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외적으로 원 도정의 문화정책에 대한 두 단체의 입장이 엇갈려온 점을 짚고 있다. 앞서 제주예총과 서귀포예총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던 원희룡 후보의 문화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민예총은 근래 이사장 재공모를 비판하고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공공도서관 단계적 개방 일정 늦추나

코로나19 상황 변화 고려 6월 재개관 날짜 변경 검토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재개관 날짜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이어 제주 방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로 문을 닫은 공립도서관 15곳을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드라이브스루 등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도 지난달 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방을 연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난 주말에 6월 4일 도서 대출이 가능한 문헌자료실부터 재개방한다는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떼어냈다. 도내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재개관 연기 여부는 1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3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시내 한라도서관,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에서 수·토요일 주2회 실시한 북드라이브스루는 회당 많게는 300명 넘게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 이 기간에 한라도서관은 24회에 걸쳐 6237명이 2만9295권의 도서 대출을 신청했다. 탐라도서관은 6997명이 총 1만9118권의 도서를 예약했다. 우당도서관은 5673명이 1만6456권의 책을 빌렸다. 반면 회당 10% 안팎의 이용자들은 도서대출을 예약해놓고 지정된 날에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다.

진선희기자

지도 들고 제주책방 55곳 찾아 떠나요

제주착한여행 2020년판 '제주책방올레' 지도 제작 6월엔 책방올레버스 가동

'제주책방올레' 2020년판이 나왔다. 사회적기업 (주)제주착한여행(대표 허순영)은 제주책방과 마을, 사람을 잇는 여행을 주제로 한 2020 '제주책방올레' 지도를 제작,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엔 총 55곳 책방의 연락처와 특징, 위치 정보, 책방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담았다. 헌책방, 어린이책방, 행사, 클래스, 북카페, 북스테이, 독립출판물, 반려동물동반, 문화누리카드 등 책방의 특징과 테마를 표시한 아이콘을 넣어 방문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도 내 수록된 책방들의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 게임 미션을 수행하듯 재미있게 책방을 여행할 수 있다. 책방에 방문해 한 권 이상의 책을 구입하면 그곳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어준다. 책방에 실제적인 혜택이 가고, 여행자들은 도장을 채워나가며 책방과 마을들을 돌아보도록 짜여졌다.

허순영 대표는 "제주 전역에 자리한 동네책방들과 마을을 연계하면 제주를 경험하는 새로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책방 지도는 약 2만 부를 제작 배포했다. 책방과 함께하는 여행과 강연 지원 등 다양한 협업 과정에서 실제로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책방들의 반응에 따라 리뉴얼 작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착한여행은 6월부터 책방 지도와 연계해 개별여행자와 단체 여행객을 위한 책방투어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책방올레버스' 일일 책방투어는 주말마다 제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책방과 주변의 마을, 바다, 핫플레이스를 찾는다. 평소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책방과 여행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제주착한여행 홈페이지(www.jejugoodtravel.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주책방 지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4)782-5152.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수 상

해병대사령관 표창

한 영 석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 부총재
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해병대사령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새마을금고
임직원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 진 삼

(사)대한한돈협회 제주서부지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서부지부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특선

양 시 우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한문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시고 영예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양씨 천호공파 이한계·수태계문중회
회 장 양 태 경 외 종친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녀회장

강 능 욱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녀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으로 부녀회 발전에 헌신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주4·3평화합창단
김필문 단장 외 단원 일동